▌이베로아메리카 제11권 2호 [2009. 12] : 355~378

스페인어의 동어원이형이의어 연구*

이 강 국**
(Lee, Kang-Guk)

<Abstract>

Estudio sobre los Heterónimos Homoetimológicos del Español.

En la lengua natural es normal que una expresión corresponda simétricamente con un sentido. Pero son asimétricas la homonimia, la sinonimia y la polisemia. Al investigar el proceso de la evolución del español, hay pares de vocablos que poseen la misma etimología, pero que en la actualidad parecen diferentes entre sí porque ya han cambiado mucho las formas y los sentidos con el tiempo. Los siguientes ejemplos corresponden a este tipo de vocablos; 'mayonesa y mahonesa', 'capa y capilla' y, 'sólido y sueldo'. Para saber el proceso por el que estos vocablos han ganado nuevos sentidos es inevitable averiguar los elementos histórico-culturales. 'Mayonesa' se ha derivado del gentilicio de Mahón, la ciudad capital de Menorca y 'capilla', aunque es verdad que fue el diminutivo de 'capa' se ha originado de la leyenda de San Martín de Tours. 'Sueldo', aunque forma el doblete con 'sólido', ganó su propio sentido en la revolución del sistema monetario de Roma. En este trabajo clasificaremos estos

* 이 논문은 2009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과제번호: 20091180001).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통번역학과
E-mail: yuniwan@hufs.ac.kr

vocablos según sus tipos y explicaremos la razón por la cual se han diferenciado los sentidos originales de los actuales desde el punto de vista histórico-cultural.

[Key Words: Heteronimia/ Hominimia/ Sinonimia/ Polisemia/ Cambio de Sentido]
[주제어: 동어원이형이의어/ 동음이의어/ 동의어/ 다의어/ 의미변화]

Ⅰ. 들어가는 말

우리가 한 언어를 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언어교육에서 말하는 네 가지 기능, 즉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를 능숙하게 숙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언어의 내적 체계에 관한 지식을 연구하는 길이 있을 수 있다. 전자가 언어의 기능적 관점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 언어 자체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언어학의 주 관심 분야가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를 들어 언어학의 경우만 한정해도 공시적인 입장에서 해당 언어의 체계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통시적인 관점에서 해당 언어의 기원 및 발전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그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본연의 의미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은 후자의 것으로서 언어 의미 속에 내재된 문화적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쓰던 말에 본연의 의미를 재부여하고, 나아가 그 언어에 대한 의식을 늘 깨어 있게 해주며 나아가서는 언어의 내적인 깊이를 더해 준다.

우리는 이미 Lapesa(1988)나 Alatorre(1989) 등을 통해 많은 스페인어 어휘들의 유래와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예를 들면 España라는 국명은 페니키아어 Sphan에서 유래된 것으로써 '토끼들이 많은 땅'이라는 뜻이며,[1] 같은 스페인을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인 Iberia는 '이베로족'이 거주하던 현재의 에브로 강 유역을 가리키던 말이었으며[2], Andalucía는 '반달족이 건너온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아랍인들이 붙여준 이름인 것이다.[3] 이들을 통해서만도 우리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어떤 외래 종족들과 교류를 하며 지내왔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처럼 말에는 그 사용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언어 발달사 교육에서 문화적인 요소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학생들에게 매우 친숙한 내용이며 언어의 내적인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어 해당 언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관심과 지식을 제공해

---

1) 이는 페니키아 어를 받아 로마인들이 붙여준 명칭이다. 다른 의미로는 "머나먼 또는 미지의 땅 (tierra remota u oculta)" 또는 "피난처 (tierra de guaridas)" 등이 제기되고 있다.

2) 이는 그리스인들이 붙인 명칭이다. 이들은 지금의 마르세이유를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 북부 일대에서 주로 활약했으므로 스페인 땅에서는 바르셀로나 일대를 주 무대로 삼았다. 따라서 이들은 에브로 강 일대의 원주민들에 대한 정보에 밝았던 것이다.

3) 이는 아랍어 Al-Andalus에서 나온 것이며, 이 어휘는 다시 vandalus라는 게르만 계 종족 명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이 종족은 409년 이베리아 반도로 남하했으나, 북아프리카로 이동해 439년 카르타고 (지금의 튀니지)를 중심으로 왕국을 건설한다. 그러나 534년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 멸망당한다 (시오노 나나미 (2003), 제 13권 참조). 라틴어로 vandalus로 표기되지만 발음은 현재의 스페인어에서처럼 양순음이 아니다. 라틴어에서는 v가 모음이었으므로 [w]로 발음되었고, 이 민족의 등장 당시인 5-6세기의 발음 체계에 의하면 이는 순치음 [v]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말로 정확히 표기하자면 '반달족'이 아니라 '완달족'이 더 정확한 표기일 것이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v가 양순음 [b]로 정착된 것은 14세기 이후이기 때문이다 (Lapesa(1988) 참조). 따라서 북아프리카에 살다 711년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온 이슬람교도들도 이 '완달족'의 실체를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Al-Andalus는 바로 이들이 붙여준 것이며, 이 종족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vandalismo '문화의 파괴주의, 흉폭, 만행'이다.

주기 때문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를 적극 활용해 스페인어의 어원인 라틴어와 그 발달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학생들에게 어원론 교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많은 외국 교재들은 이미 어원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4] 상황이 달라지면 교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에서는 학생들이 흔히 접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어휘들의 의미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언어교육에서의 문화 요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방법을 효과적인 어원론 교수법의 하나로 체계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Ⅱ. 언어 기호의 비대칭성과 동어원이형이의어

정상적인 자연 언어의 경우 기호는 내용 면과 표현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가지 내용에 대해 한 가지 표현이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그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언어 기호의 비대칭성을 보여주는 예로는 동음이의어, 동의어, 다의어를 들 수 있다.[5]

동음이의어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기호들이 표현 면에서는 동일하나 내용 면에서는 서로 상이한 경우이다. 즉, 한 형태가 두 개 이상의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는 다시 음성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문자면에서는 서로 다른 동음이형어(homofonía) 관계와

4) 이를 극복하고자 본인은 2002년 이중형태를 이용한 어원교육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이 형태 위주의 접근법이었다면 본고는 이를 문화적 차원에서 보완 완성시키기 위한 모색이다.

5) 송완용(1996:239 이하) 참조.

문자면에서는 동일하나 음성 면과 의미 면에서 상이한 동형이음어(homografía) 관계로 나뉜다. 영어를 예로 보면, 동음이형어의 경우는 meet '만나다'와 meat '고기' 간의 관계이다. 두 단어는 발음은 [mi:t]로 동일하지만 형태는 상이하기 때문이다. 동형이음어의 예로는 read [ri:d] '읽다'와 read [red] ''읽다'의 과거분사형'를 들 수 있다. 형태는 동일하지만 발음과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페인어는 형태와 발음 간의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세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스페인어의 대표적인 동음이의어로는 manzana를 들 수 있다. 이는 '사과'라는 과일의 의미와 '구획'이라는 공간적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 두 의미는 어원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6] 이밖에도 도시명인 Tarifa와 '가

6) manzana의 형태적 어원은 로마의 Cicero 시대에 살았던 Caius Mattius라는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인물은 당시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서, 이 사람의 개인 이름(Mattius)에서,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Mattius의 형용사형인 Mattianus의 복수형인 Mattiana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사람이 재배한 사과가 특히 맛이 좋다보니 mala Mattiana가 '맛 좋은 사과'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이것이 차츰 일반화된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사인 mala는 잊혀지고 형용사만 남아 명사화되었다. 스페인 고어에서는 이 Mattiana가 변해 maçana로 표기되었고 [matsiana]로 발음되었다. 그러던 것이 발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n-가 우발적으로 삽입되어 현재처럼 manzana가 된 것이다 (이강국 2001:73). 반면에, '구역'이라는 의미로 manzana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라고 한다. Juan Ramón Lodares Marrodán에 따르면, 이 단어의 유래는 '민간어원'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써, 불어의 maçon 'albañil'이나 maison 'casa'에서 유래 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한다. 즉, '미장이'니 '집'에 관계되는 이 어휘들을 불어에서 차용했을 때, 이를 들을 일반 대중들은 이를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던 manzana로 잘못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집'이라는 의미로는 이미 casa가 있으므로 'bloque de casas'라는 공간적으로 좀 더 넓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고착된 것이다. 결국엔 프랑스어를 모르던 일반 대중들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이 익히 잘 알고 있으며 maçon이나 maison과 형태상으로도 가장 가까운 manzana라는 단어를 떠올린 것이다. 결국 manzana '사과'라는 어휘는 본래는 'bloque de casas'라는 의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발음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일반 대중들의 뇌리에서 채택되기에 이른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두 형태는 동음이음어가 된 것이다 (http://home.unilang.org/babelbabble/index.php?n =21&t =8과 http://es.wiktionary.org/wiki/manzana 참조).

격표'를 의미하는 tarifa도 동음이의어 관계의 어휘이다 (DRAE(2002)[7] 참조).

동의어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기호들이 내용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표현면 (음성이나 문자)에서 상이한 경우이다. 스페인어의 가장 대표적인 동의어 관계는 guapo, hermoso, bonito, bello, lindo 등이다. 이들은 모두 '예쁜, 아름다운'이라는 유사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흰'이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blanco와 albo, cándido, '진정한, 진짜의'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 auténtico와 verdadero 등도 모두 동의어로 분류된다. 그러나 각각의 형태는 역사적 형성 과정이 상이하고 모든 문맥에서 상호 호환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완전히 동일한 어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윤식(2004:256)은 이런 류의 어휘들을 동의어가 아닌 '동류어'라 부른다. 동일한 대상을 표현하지만 공유하는 의미 자질이 다수 겹칠 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의어란 어떤 기호가 서로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스페인어에서 esposa는 '아내'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주로 복수로 표현해서 '수갑'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granada는 '석류'라는 열매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그 열매가 익어서 벌어지는 형태로 인해 '수류탄'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banco '벤취'와 '은행', especular '사색하다'와 '투기하다', forma '모양'과 '(pl.)자태', pendiente '매달려 있는'과 '귀고리', tienda '텐트'와 '가게' 등 많은 예들이 있다.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구분이 쉽지 않다. 이 어휘들은 동일 어원에서 유래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래의 의미에서 유추되어 새로운 의미로 영역이 확장된 경우이므로 다의어로 볼 수 있다.[8] 그러나 한 형

---

7) 이는 Real Academia Española에서 발간하는 사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하 본고에서는 DRAE로 표기할 것이다.

8) 다의어라고 해서 모두 본래의 의미에서 의미가 유추 확대된 것만은 아니다. 예를

태가 발전 과정에서 완전히 상이한 의미를 갖게 된 경우에는 동음이의어로 분류된다.[9)]

그런데, 스페인어 어휘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두 어휘가 동일한 어원에서 유래되어 역사적인 관계는 매우 긴밀한데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형태와 의미가 완전히 분화되어 현재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mayonesa '마요네즈'와 mahonesa 'Mahón의 형용사형', capa '망토'와 capilla '예배당', sólido '단단한'과 sueldo '봉급' 등 사이의 관계이다. mayonesa '마요네즈'는 Mahón이라는 지명의 형용사에서 나온 말이다. 즉 mahoneso(a)와 동일 어원의 어휘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두 어휘의 의미 간에는 아무런 관계를 찾을 수 없다. capilla는 '예배당'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capa '망토'의 축소사이다. 대부분의 어휘들과는 달리 이 어휘들은 본래의 명사와 그 축소사 간에 아무런 의미적 공통점을 찾아 볼 수가 없다.[10)] sueldo '급료'는 sólido '단단한'와 동일한 어원에서 유래된 이중어이다. 이들은 이형동의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의어나 동음이의어는 더욱 아닌 형태들이다. 공시적 관점에서 보면, 형태와 의미 면에서 서로 완전히 이질적이므로 별개의 어휘들을 뿐이다. 현재는 아무런 의미적 상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시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어휘들은 결코 서로 아무런

들어, mano의 경우 '손'과 '권리'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lavarse las manos '손을 씻다'라고 할 때는 '손'이라는 의미가 되지만 pedir la mano '청혼하다'라고 할 때는 '권리'라는 의미로 쓰인다. 역사적 관점에서 두 의미의 어원이 동일하므로 동음이의어보다는 다의어로 보는 것은 맞지만 두 의미간의 관계가 반드시 유추적 확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9) 송완용(1996:240, 247)은 동일 표현에 대해 각 의미들이 자질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동음이의어이고 의미들의 자질이 일부분 공유되는 것들은 다의어로 구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여기에다 어원적 유래의 공통성 여부를 더한 것이다.

10) 그렇다고 해서 현재 capilla가 capa의 축소사로 쓰이지 않는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단지 '망토'와 '예배당'이라는 두 의미만을 비교할 때 공통점이 없다는 뜻이다.

관계가 없는 어휘들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어휘들보다도 더 긴밀한 관계에 있는 어휘들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어원에서 유래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형태와 의미가 분화되기 이전에는 동류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발전 또는 생성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요인이 개입되어 의미가 달라진 것들이다. 이들은 공시적 관점에서는 별개의 어휘로 보이지만,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동류의 어휘들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어휘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의미가 이처럼 상이해진 이유를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앞에서 언급한 esposa, granada, banco와 manzana 등과 같은 어휘들은 발전 과정에서 본래의 의미에서 유추 확대되거나 별도의 경로를 통해 의미를 부여 받아, 다의어나 동음이의어가 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예로 든 mayonesa, capilla, sueldo 등은 의미 획득 과정에서 이들과는 별도의 역사-문화적 요인이 추가로 개입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경우들이다. 따라서 후자의 예들은 전자처럼 자연스럽게 의미가 분화되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sólido>sueldo), 두 의미 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mahonasa>mayonesa, capa>capilla). 어휘 연구에서 이러한 유형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의어나 동음이의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일한 어원에서 유래된 것들이므로 단순하게 별개의 형태에 별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상이한 어휘들로만 취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공시적 관점에서 보면 다의어나 동음이의어, 또는 동의어들처럼 표현과 내용 면에서 비대칭성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히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대칭성을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형태들을 '동어원이형이의어'라고 부르며,[11] 이들의 발전 과정에서 개입된 역사-문화적 요소들을

11) 이들을 어원적으로 '동음어'나 '동형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어 sólido/sueldo는 어원이 동일하므로 어원적으로 동음어이지만 capilla는 capa의 축소사이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즉, '동어원이형이의어'란 이처럼 현재는 내용과 표현 면이 모두 달라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유추할 수 없는 형태들이지만, 동일 어원에서 유래된 것들이므로 어원적으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다.[12] 이러한 형태들이 역사언어학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언어를 정신의 구현이라고 본다면[13] 이들이야 말로 스페인어의 발전 과정을 고스란히 체득하고 있는 형태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류의 어휘들은 형태론적으로는 물론 의미론적으로도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어휘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해 왔다. 왜냐하면 이들은 동음이의어도, 동의어도, 다의어도 아니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형태들만을 놓고 비교해보면, 서로 다른 형태와 의미를 지닌 별개의 어휘들일 뿐이다. 그러나 어원적으로 분석해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 단어들이 동일한 어원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어원에서는 동일한 형태를 지녔었고 동일한 의미기능을 수행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발전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의미와 형태가 완전히 분화되어 현재에는 별개의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이

므로 어원적으로도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12) 동일한 어원에서 기원한 대표적인 어휘들로는 auricula/oreja, directo/derecho, estricto/estrecho, pleno/lleno 등과 같은 '이중어(doblete)'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들은 '동어원이형이의어'로 분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넓게 보면 의미상 매우 유사한 '동류어'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형태들의 발전 과정에서는 음운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을 뿐 새로운 의미의 창출에 문화적 요인이 개입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동어원이형이의어'로는 분류되지 않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동일 어원에서 유래된 것은 같지만 형태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진 형태들의 발전 과정만 한정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중어들의 형태적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이강국(1999, 2002, 2007)을 참조 바람.

13) 훔볼트(1985) 및 이성준(2007) 참조. 훔볼트에게 있어서 "어떤 민족의 정신적 특징과 언어형성은 상호 밀접하게 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주어지면 다른 것은 완전히 그로부터 파생될 것이다.[...] 언어는 말하자면 민족정신의 외적 현상이고, 민족의 언어는 민족정신이며, 민족정신은 민족의 언어이다." (헬비히(1984:14 이하) 참조).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단어들을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동일한 어원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별개의 형태에 별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별개의 어휘로만 취급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아니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는 어휘 연구에서 크게 주목 받지 못해온 이 어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어휘의 의미 연구에서 작용한 역사-문화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이용한 학습 방법을 어원론 교수법의 하나로 체계화시키고자 한다.

Ⅲ. 동어원이형이의어의 의미 분화

1. '지명>음식명' 의미 변형 유형

mayonesa '마요네즈'는 mahonesa 'Mahón의'와 동일한 어원, 이 경우에는 동일한 지명에서 유래되었지만 어원과는 별개의 의미를 갖게 된 경우이다. 현재 이 두 어휘는 형태적으로든 의미적으로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mayonesa는 mahonesa에서 나온 것이다. 즉 '마요네즈'라고 부르는 이 소스의 어원은 지중해상에 위치해 있는 Menorca섬의 주도인 Mahón의 형용사형인 mahonesa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에게는 흔히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이 소스를 프랑스에 처음 소개한 사람이 프랑스의 리슐리외 공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1756년 메노르까 섬에서 영국군과의 전투 준비에 골몰하던 공작이 어느 음식점에서 맛본 소스의 맛을 잊지 못해, 그 조리방법을 프랑스로 가져와 소개한 것이 기원이라고 한다. mayonesa라는 어휘가 바깥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계기는 이론의 여지없이 리슐리외 공

작의 공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어휘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807년 Larousse 프랑스어 사전이었으며, 그 후 1841년 Oxford 영어 사전에 소개 되었고, 스페인어에서는 188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DRAE에 실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mahonesa라는 단어가 교양어로 인정받게 된 것은 1925에 이르러서 이다.[14] 그러나 당시 리슐리외 공작이 맛보았다는 소스는 이미, 바깥세상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흔히 사용되던 소스였다고 한다. 결국 salsa mahonesa 'Mahón의 소스'에서 명사는 탈락하고 형용사형만 남아 '마요네즈 (mayonesa)'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 도시명은 다시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인 하니발 (Hannibal)의 동생 마고(Mago)로 거슬러 올라간다.[15] 부친인 하밀카르 장군의 손에 이끌려 하니발과 그의 형제들이 이베리아 반도로 건너온 것은 로마와의 제 1차 포에니 전쟁에서 패한 직후인 기원전 237년경이다.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하니발은 부친과 매형의 뒤를 이어 이베리아 반도 카르타고군의 사령관이 되고, 기원전 218년 피레네 산맥을 넘어 로마로 진격함으로써 이른바 제 2차 포에니 전쟁이 벌어진다.[16] 이 때 이탈리아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형을 지원하기 위해 동생인 마고는 지원 부대를 모집하기 위해 발레아레스 제도로 건너간다. 발레아레스 제도의 섬 메노르까에 있는 도시 Mahón은 그의 이름(Mago)에서 유래된 것이다.

메노르까 주민들이 계란 노른자에 기름과 레몬즙, 겨자 등을 섞어 만

14) http://es.wikipedia.org/wiki/Mayonesa 참조.

15) Huf, Hans-Christian(2000), 역사의 비밀, 이민수 역, 서울: 오늘의 책, 130쪽 참조. 일설에 의하면 메노르까의 요리가 맛이 없어 전담 요리사가 나름대로 재료들을 섞어 고안해 낸 것이라고도 하는데,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메노르까 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한 소스가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대륙으로 전해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이 리슐리외 때문인 것뿐이다.

16) 이른바 '하니발 전쟁'에 관해서는, 많은 저서들 중에서도 특히 시오노 나나미 (2003) 제 2권과 리델 하트(1999)를 참고할 만하다.

든 이 소스를 언제부터 먹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대부분의 음식들이 그렇듯이 이 또한 그 기원을 밝혀내는 것이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명칭이 'Mago>Mahón>(형용사형인) mahonesa>mayonesa'를 거쳐 유래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17]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뇌리에서 이 소스와 지명 간의 관계가 잊혀진 것뿐이다. 이처럼 이 두 형태는 동일한 어원으로부터 유래된 것이지만, 그 발전 과정에 개입된 역사-문화적 요인들의 차이로 인해 완전히 별개의 두 어휘로 분화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유형에 속하는 어휘가 '카스텔라(castella) 빵'으로써,[18] 또 다른 대표적인 스페인 기원의 음식이다. 기원에 대한 가장 유력한 설은 스페인의 까스띠야(Castilla) 지방에서 만들어지던 빵을 포르투갈 선원들이 일본에 전하면서 그 이름도 함께 전파된 것이라는 것이다.[19] 그러나 이 두 형태 중 castella는 현재 스페인어에서 쓰이는 형태가 아니므로, 본

17) 스페인에는 정복자나 건설자의 이름을 딴 도시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Barca가문이 남긴 Barcelona이다. 이 도시는 하니발의 아버지인 Hamilcar 장군이 건설했으며 그는 이 도시를 Barcino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것이 변해 Barcelona가 된 것이다. 접미사 -ona 형태는 리구리아어의 영향이라고 한다 (이강국(2001:25) 참조). Gibraltar는 Tarik이라는 아랍인 장군의 이름에서 나온 것으로 'roca de Tarik'이라는 의미이며, Calatayud는 Ayub에서 나온 것으로 'castillo de Ayub'이라는 뜻이다 (Lapesa(1988) 참조).

18) 스페인에서는 castella라는 이름을 가진 빵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어휘는 스페인어 사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스페인의 Castilla지방을 포르투갈어 식으로 발음한 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페인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스페인어로 표기하기가 곤란한 어휘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google과 yahoo 등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형태에 따라 castella라고 표기할 것이다.

19) '빵 (pan)'이라는 말도 알고 보면 포르투갈 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단어이다. '빵'의 기원은 이미 오랜 역사 이전부터 이집트에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다고 하며, 특히 그리스, 로마로 전해져 그들의 주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이 역시 16세기 포르투갈 인들이 자신들의 말인 pão '빵'을 일본에 전해준 것이고, 이것이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1997) 참조).

유형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같은 어원(지명)에서 유래된 것이지만, 변화 과정에 개입된 역사-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의미적 상관관계 없이 쓰이고 있는 것이 유사할 뿐이다.

이 카스텔라가 처음 등장한 것은 15~16세기 지리상의 발견이 한창이던 시대에 스페인 중부의 까스띠야(Castilla) 왕국이다. 까스띠야 인들은 자신들 특유의 요리법인 밀가루와 달걀, 설탕 등을 혼합해 부풀리는 기술을 이용해 부드럽고 달콤한 빵을 구워냈다. 특히 달걀의 흰자를 저어 거품을 내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카스텔라'이다. 당시 스페인 인들과 더불어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포루투갈 인들도 이 빵을 즐겨 먹었다. 이들은 이를 간단하게 발상지 명을 따서 '까스뗄야' (포르투갈어로는 Castelha)라고 불렀으며, 이것이 일본으로 흘러 들어와 '카스텔라'라는 이름으로 정착된 것이다.[20] 이 명칭은 후에 다시 우리나라로 전파되어 부드럽고 달콤한 빵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앞의 '마요네즈'처럼 '카스텔라' 역시 의미 획득 과정에서 역사-문화적 요인이 강하게 개입되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경우이다.

그러나 이는 본래 '빵'이라기보다는 '과자'였다. 스페인에서는 이 종류의 빵을 bizcocho '비스꼬초'라고 부르며, '카스텔라'라고는 부르지 않는다.[21] 현재 스페인어에서 '과자'는 galleta라고 한다. DRAE(2002)에 따르면 이 단어의 유래는 불어의 galette로써 바삭바삭하게 오븐에 구운 말 그대로 '과자'이다. 이 역시 '항해용으로 오래 보관하기 위해' 효모를 쓰지 않

20) castella '카스텔라'는 일본인들이 구개음을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발음을 다시 영어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스페인어로는 Castilla, 포르투갈어로는 Castelha이며, 두 언어 모두 구개음으로 발음된다.

21) DRAE(2002)에 따르면, bizcocho의 어원은 '2'를 뜻하는 bi-에 라틴어 coctus 'cocido'가 붙어 만들어진 것이다. 즉 '두 번 구운 빵'인 것이다. 이는 본래 오래 보관하기 위해 효모를 쓰지 않고 두 번 구운 빵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한다. 쓰지하라 야스오(2002:214)에 따르면, 카스텔라는 제조법이나 모양이 비스꼬초와는 다르므로 '카스텔라'는 일본에서 개량된 서양식 빵이라고도 한다.

고 바삭하게 구운 과자이다.[22]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유형으로, 스페인은 아니지만 멕시코의 지명에서 유래된 것으로 '타바스코'라는 매운 소스의 이름도 들 수 있다. 이 소스는 제조사가 미국에 있으므로 멕시코 산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명칭은 유카탄 반도에 있는 지방 명에서 나온 것이다. 왜 이 이름을 소스의 이름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지만, 아마도 이 소스의 주 원료가 되는 붉은 고추의 원산지가 타바스코 지방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이름을 상표명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23]

2. '명사 원형>축소사' 의미 변형 유형

어원 상 capilla '예배당'는 capa '망토'의 축소사이지만 현재는 원형과 완전히 별개의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 왜 명사의 원형에서 파생된 축소사가 본래의 어휘와 이처럼 상이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일까?

'예배당'이라고 해석되는 이 capilla와 추위를 막거나 멋을 내기 위해 어깨에 두르는 capa '망토', 이 두 어휘의 외형과 의미만을 갖고는 두 단어의 연관관계를 추측하는데 많은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capilla '예배당'이 왜 capa '망토'에서 유래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원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 문화 요소들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외형상으로는 서로 무관한 듯 보이지만 어원

22) galleta라는 단어는 18세기 중반에야 스페인어에서 사용된다. Celdrán(1995:239)에 따르면, 이 어휘는 프랑스어 galette에서 들어온 것이며, 프랑스어는 다시 강바닥에 굴러다니는 '자갈'을 뜻하는 고대어인 galet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이 '과자'의 모양이 '자갈'처럼 납작하게 생긴 데서 나온 것이다.

23) 쓰지하라 야스오(2002:214-5) 참조. 이 상표가 등록된 것은 1868년이므로 비교적 최근에 본래의 지명과는 별도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어휘이다.

적으로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두 어휘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capilla '예배당'의 유래는 로마 시대에 살았던 San Martín이라는 사람의 행적과 전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명 San Martín de Tours라고 불리는 Martín César Juliano는 316년 헝가리에서 태어나 이탈리아의 파비아에서 공부했으며, 15세에 로마군에 입대했다.[24] 평소 신심이 깊고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던 그는 군 생활 도중에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의 부대가 프랑스의 아미앵에 머물던 때였는데, 길거리에서 헐벗고 굶주린 걸인을 보자 자신이 두르고 있던 망토를 잘라 걸쳐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 날 밤 꿈에 낮에 그가 잘라준 바로 그 망토를 걸치고 예수께서 현몽하셨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가톨릭에 귀의하게 된 그는 그 후 군에서 제대해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그의 선행을 기려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한다.[25] 그리고 그 교회들, 즉 '예배당'들을 cappella부르게 되었는데, 이는 cappa의 축소사로써 '반쪽 망토'라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변해 capilla가 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는 San Martín이라는 인물과 capilla라는 명칭 간의 관계가 차츰 잊혀져 갔고, 결국에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취급되기에 이르렀다.[26]

---

24) 그의 이름이 San Martín de Tour가 된 것은 371년이 이 도시 사람들이 그를 모셔다가 주교로 삼았기 때문이다. 397년 프랑스의 Candes에서 사망했으며, 11월 11일이 그의 축일이다. 프랑스와 헝가리의 수호성인이며, 스페인의 오렌세, 프랑스의 아미엥과 아비뇽, 파리, 네덜란드의 유트레히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등의 수호성인이기도 하다.
(http://en.wikipedia.org/wiki/Martin_of_Tours 참조).

25) San Martín의 생애와 기적에 관해서는 Stancliffe, Clare(1983)와 Lanzi, Fernando (2004) 참조.

26) 이강국(2001:72) 참조. 이와 유사한 변화를 겪은 것이 앞에서 언급한 manzana이다 (주 5 참조).

이 두 어휘 간의 관계는 estricto–estrecho, pleno–lleno 등과 같이 동일한 어원에서 유래해 유사한 형태와 의미를 지니는 이중어들 간의 관계나 dinero–pecunia, carta–epístola 등과 같이 어원이 서로 다른 유의어들 간의 관계와는 또 다른 면을 갖고 있다. 형태상으로는 분명히 관계가 있는 데 의미상으로는 전혀 다른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역사–문화적인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 또한 언어를 알아 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의 내적 의미를 어원인문학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두 어휘간의 내밀한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하는 것이다.

3. '형용사>명사' 의미 변형 유형

sólido '단단한'와 sueldo '급료' 두 어휘는 동일한 어원에서 기원한 형태들이지만, 현재는 형태적으로든 의미적으로든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동음어'이다. 즉 sólido는 라틴어 solĭdus에서 유래된 어휘로써 형용사이다. sueldo는 동일한 어원에서 기원한 어휘인데 명사로써 현재는 '급료'라는 어원적 의미와는 완전히 다르게 쓰이고 있다. 왜 두 어휘가 어원은 동일한데 이처럼 상이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일까?

먼저, sueldo의 유래를 알기 위해서는 로마의 통화 체계를 알아야만 한다. 로마에는 금화 (aurĕus)와 은화 (denarĭus), 동화 (sestertĭus)가 있었으며[27],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것은 은화였다.[28] 통화 구

27) 기존에는 은화와 동화 두 가지밖에 없었으나 금화를 통화에 도입한 사람은 Iulius Caesar이다.

28) 2세기 말까지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통용 화폐는 은화인 denarius였다. 금화는 주로 군단병들이나 정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던 급료였거나 축재의 수단이었을 뿐,

조를 체계화시킨 사람은 아우구스투스로써, 그는 1아우레우스는 25데나리우스 및 100세스테르티우스의 가치로 고정시킴으로써 로마 제국의 경제 안정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약간씩의 변동 사항은 있었지만, 이 체계는 2세기 말까지 유지된다.[29] 그러던 것이 로마 제국의 정국이 점점 혼미를 거듭해 가면서 통화의 가치도 하락하게 되었다.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은화의 은 함유량 하락이었으며, 이에 따라 자연히 통화 가치도 동반 하락하게 되었다. 이에 4세기 콘스탄티누스는 당시까지의 은본위제를 포기하고, 금본위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금화인 aurĕus보다 가벼운 금화인 solĭdus를 발행하게 되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sólido(a)의 어원으로써, '단단한, 강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아마도 통화 제도의 '안정'을 강력하게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30] 이 어휘로부터 나온 sueldo가 '급료'가 된 것은 이 금화의 주된 용도가 바로 군단병들에게 지급하던 '급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료'라는 의미로 solĭdus (>sueldo)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4세기 콘스탄티누스 이후부터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동일한 의미로 어떤 어휘가 사용되었을까? 본래 라틴어의 '급료'는 merces,-edis로써, 이는 현재의 mercenario '용병'(<mercenarĭus)의 어원이 된다. 말 그대로 '(주로 군대에서)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급료를 원하는 사람'이다. 또한 salarĭum이라는 용어도 일반적으로 쓰였다. 스페인어에서 sueldo의 동의어인 salario는 여기에서 유래된

일반인들에게는 구경하기도 힘든 대상이었으므로 현재 '돈'의 대명사로 남은 것은 은화였던 denarius이다. 이것이 변해 dinero가 된 것이다. 각각 '금화'와 '동화'를 가리키던 áureo와 sestercio는 현재 사전에서나 존재하는 어휘일 뿐 실제 통화 개념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돈'의 형용사형으로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pecuniario(a)가 쓰인다. denarius는 본래부터 형용사형이 없던 단어였기 때문이다.

29) 시오노 나나미(2003), 제 6권, p.84 참조.

30) 시오노 나나미(2004), 제 13권, p.121과 p.291 참조.

것인데, 이는 본래 sal '소금'에서 나온 것이다.[31] 동서양을 막론하고 화폐가 통용되기 전에는 '소금'이 매우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교역의 매체가 되었으며 화폐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경제생활에서도 매우 귀한 것이었다. 제정시대부터는 관리와 군인들의 급료로 소금 대신 돈이 지급되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salarĭum으로 불렸던 것이다. 로마의 주요 가도 중 하나였던 vĭa salarĭa 역시 염전과 연결되어 있었던 관계로 '소금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cálido와 caldo 또한 이와 유사한 과정을 겪은 어휘들이다. cálido는 라틴어 calĭdus에서 유래된 '따뜻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그러나 동일한 어원에서 유래되었지만 스페인어 caldo는 '국물'이라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32] 왜 이처럼 상이한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로마인들은 육류보다는 생선류와 곡류를 주식으로 먹었다고 한다.[33] 이 때 함께 먹던 것이 *minĕstru였다.[34] 이 음식은 채소나 곡류, 파스타 등을 넣고 끓인 수프의 일종이다. 요리법이 정해진 것은 없고 상황에 따

31) DRAE(2002) 참조.

32) caldo는 라틴어 calidus '따끈한'에서 유래된 어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에서는 아직도 같은 의미의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이베리아 반도에서만 '국물'이라는 별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로망스어에서 동일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3) 로마인들이 즐겨먹던 음식에 관해서는 개인의 취향과 경제력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으므로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힘들다. 여기서는 단지 가장 일반적으로 즐겨먹던 종류를 말한 것뿐이다. 세 끼 식사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녁 식사의 메뉴와 양상에 대해서는 카르코피노 (2003:444 이하) 참조.

34) 현재 이탈리아어에서는 zuppa와는 다른 종류의 수프를 가리키는 용어로 minestra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형태의 증대사인 minestrone도 쓰이고 있다. http://es.wikipedia.org/wiki/Minestrone 참조.

라 쌀, 콩, 양파, 당근, 토마토 등의 야채를 넣기도 하고, 닭고기나 베이컨 등을 넣기도 한다. 공통점은 따끈한 국물 형태로 요리해 먹는다는 것이다.[35] 따라서 '따끈한 국물'이 *minĕstru calĭdu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사는 탈락되고 형용사만 남아 동일한 의미를 가리키는 독립 어휘로 정착된 것이다.[36] 그러다 보니 형용사가 자연스럽게 명사화되었으며, 어중의 비강세 모음이 탈락된 형태인 caldo로 변화되어 형용사형과는 다른 의미와 형태를 지니게 된 것이다.[37] 반면에, 로마인들과는 달리 게르만인들은 이보다 더 걸쭉한 '죽'을 즐겨 먹었다. 이것이 sopa이다. 이 어휘는 게르만어 기원으로써 후기 라틴어에 *sŭppa라는 형태로 유입되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는 모사라베어에서도 suppa가 사용되었다.[38] 이것이 후에 sopa로 변한 것이다. 제정 말기 게르만인들이 대거 남하한 후에는 caldo와 더불어 이 음식 또한 일반화 되었으며, '국물'이라는 의미와는 다른 '죽'과 같은 형태의 음식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어휘들의 의미 분화에는 역사-문화적인 요인들이 깊이 개입한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어휘 의미의 변천과정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문화적

35)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B%84%A4%EC%8A%A4%ED%8A%B8%EB% A1 %9C%EB%84%A4 참조.

36) 이와 유사하게 본래는 형용사였는데, 명사가 탈락되고 홀로 남아 독립 어휘화된 것으로는 hermano(a)를 들 수 있다. 본래 어원은 '진짜의'라는 의미의 germamus이다. 라틴어에서 '형제'는 frater, '자매'는 soror이다. 따라서 '진정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각각 frater germanus와 soror germana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차츰 명사가 생략되고 형용사만 남아 '형제'와 '자매'라는 독립된 의미의 어휘로 발전한 것이다. 어두의 g-가 h-로 변화된 것은 우발적으로 변한 것으로써 중세 때는 ermano라고도 쓰였다. 이강국(2001:72) 참조.

37) 형용사인 cálido는 교양어이다. 동일한 의미의 대중어는 frío이다. 이것은 frigĭdus에서 유래된 형태로 교양어인 frígido(a)와 대립하고 있다. 이탈리아어에서는 caldo와 freddo가 대립하고 있다.

38) Roberts, Edward A. & Pastor, Bárbara(2007:156-7) 참조.

인 상황까지도 알 수 있는 것이다.

Ⅳ. 맺는 말

굳이 훔볼트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언어가 인간 정신의 구현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어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단순히 언어의 체계를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심리적인 사고 체계를 연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즉 한 언어에 대한 이해는 우리 인간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언어의 형성 과정에서 개입된 역사-문화적 요인들은 한 언어의 의미 체계를 이해하는 지름길이 된다.

언어는 인간 정신의 변천 과정과 더불어 그 사회가 누리고 있는 문화의 양상도 담고 있게 마련이다.[39] 문화와 지력이 발달한 사회의 언어일수록 규칙성과 체계성 또한 발달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말이라는 것이 아무리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반드시 언어공동체 내의 모든 형태들이 단일한 방향으로만 의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살펴본 mahonesa>mayonesa 유형의 경우, Mahón이라는 도시의 형용사형과 '마요네즈'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형태적 분석만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capa>capilla 유형의 경우에도, capilla는 capa의 축소사이므로 대부분의 축소사들처럼 원형의 의미를 '작고 예쁘게'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40] 그러나 이들은 완전히 다른 의미 영역을 확

39) 언어가 담고 있는 사회성과 문화성에 대해서는 최기호, 김미형, 임소영(2004:7) 참조.
40) capilla는 물론 '작은 망토'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그러나 '예배당'이라는 의미 영역에만 한정한다면 원형인 capa '망또'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

보하고 있어, 원형과 축소사의 의미 관계만으로는 두 어휘의 관계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sólido>sueldo 유형에서도, 두 어휘 간의 의미 관계 역시 형태적 접근만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 유형의 어휘들 역시 발전 과정에서 개입된 역사-문화적 요인들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상호간의 의미 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들은 현재의 형태들만을 놓고 보면, 형태적, 의미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휘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원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들은 동일 어원에서 유래되었으며, 발전과정에서 상이한 문화적 요인들의 개입으로 별도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 '동어원이형이의어'들이다. 이들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동음이의어나 동의어, 다의어 등 기존에 분류 및 분석 가능한 다른 류의 어휘들과는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일한 어원에서 유래되었으나 현재는 형태도 의미도 서로 달라 유추조차 불가능한 어휘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어휘들의 발전과정에 개입된 역사-문화적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동어원이형이의어'들의 연구 또한 어원 연구에 매우 중요한 대상이며, 이들을 연구하는 데는 역사-문화적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교육 실정에 친숙하지 않은 라틴어와 이를 토대로 해야만 하는 어원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교수 방법이 필요하다. 스페인어 사용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라틴어 교육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에게 자칫 언어발달사나 어원론은 따분하기 이를 데 없는 과목이 되기 십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다. 예를 들면, cola/colilla, fruta/frutilla, manta/mantilla, vantana/ventanilla 등 대부분의 축소사들은 원형의 의미를 규칙적으로 '작고 예쁘게'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미가 전용 또는 확장되어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할지라도 원형의 의미로부터 유추가 가능한 정도이다.

위해서는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교수법을 개발해야 하는데, 본고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문화와 어원론'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즉, '문화 코드를 이용한 어원론 교수법'이 그것이다. 어휘의 의미 변화 역사는 대개 곧 그 문화사의 변천과정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 과정에서 문화적 요소들이 개입된 자료들을 교수 자료로 삼으면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법은 아직 완전하게 체계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본 논문을 계기로 수정, 보완하여 스페인어 발달사 및 어원론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교수법으로 승화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이 스페인어 어원론 교수법 개발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기번, 에드워드 등(2004),『로마제국 쇠망사』, 황건 역, 서울: 청미래.

두산동아(1997),『두산세계대백과사전』, 서울: 두산동아.

리델 하트, B.H.(1999),『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박성식 역, 서울: 마니아북스.

박종철, 오충연(2004),『언어와 문화, 그리고 삶』, 수정판, 서울: 월인.

송용완(1996),『언어학 기초이론』, 서울: 신아사.

시오노 나나미(2003),『로마인 이야기』, 제 2권, 제 6권, 김석희 역, 서울: 한길사.

_____(2004),『로마인 이야기』, 제 13권, 김석희 역, 서울: 한길사.

신정환(2005), "안달루시아, 이슬람과 유럽문명의 교차점",『지중해, 문명의 바다를 가다』, 박상진 엮음, 서울: 한길사, 225-243.

쓰지하라 야스오(2002),『음식, 그 상식을 뒤엎는 역사』, 이정환 역, 서울:

창해.
이강국(1999), “불규칙형태 설명시의 어원 활용”, 『서어서문연구』, 15, 121-140.
_____(2001), 『스페인 언어 문화사』, 서울: 송산.
_____(2002) “이중형태를 이용한 역사음운론 교수법”, 『서어서문연구』, 23, 111-134.
_____(2007), 『스페인어 역사 음운론』,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성준(2007), 『인간과 언어의 정신활동』, 서울: 푸른사상사.
주영복(2003), 『포한사전: 브라질어 사전, 포루투갈어 사전』, 서울: 성안당.
최기호, 김미형, 임소영(2004), 『언어와 사회』, 서울: 한국문화사.
카르코피노, 제롬, 2003, 『고대 로마의 일상생활』, 류재화 역, 서울: 우물이 있는 집.
헬비히, 게하르트(1984), 『언어학사』, 서울: 경문사.
후이징가, 조안(1988), 『중세의 가을』, 최홍숙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후프, 한스-크리스티안(2000), 『역사의 비밀』, 이민수 역, 서울: 오늘의 책.
훔볼트, 빌헬름 폰(1985), 『카비말 연구서설』, 신익성 역, 서울: 서울대학교.
Alatorre, Antonio(1989), *Los 1,001 años de la lengua española*, Ciudad de México: Tezontle.
Bibliograf(1964), *Diccionario Latino-Español/Español-Latino*, Barcelona: Bibliograf.
Celdrán, Pancracio(1995), *Historia de las cosas*, Madrid: Ediciones del Prado.
Corominas, Joan & José A. Pascual(1992), *Diccionario crítico etimológico castellano e hispánico*, Madrid: Gredos.
Lanzi, Fernando(2004). *Saints and Their Symbols: Recognizing Saints in Art and in Popular,*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Lapesa, Rafael(1988),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Gredos.
Lewis, Charlton(1984), *A Latin Dictionary,* Oxford: Clarendon Press.
Menéndez Pidal, Ramón(1991), *Cantar de Mio Cid, texto antiguo Ramón Menéndez Pidal,* Madrid: Espasa-Calpe.
Real Academia Española(ed.)(2002),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21a ed., Madrid: Espasa-Calpe.
_____(2005), *Diccionario panhispánico de dudas,* Madrid: Santillana.
Roberts, Edward A. & Pastor, Bárbara(2007), *Diccionario etimológico indoeuropeo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Alianza.
Seco, Manuel(1996), *Diccionario de dudas y dificultades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Segura Munguía, Santiago(2006), *Diccionario por raíces del latín y de las voces derivadas*, Bilbao: Universidad de Deusto.
Stancliffe, Clare(1983), *St Martin and his hagiographer: History and miracle in Sulpicius Severus,* Oxford: Clarendon Press.
http://culturitalia.uibk.ac.at/hispanoteca
http://es.wikipedia.org/wiki/Mayonesa
http://en.wikipedia.org/wiki/Martin_of_Tours
http://es.wiktionary.org/wiki/manzana
http://home.unilang.org/babelbabble/index.php?n=21&t=8

▌논문투고일자: 2009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자: 2009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12월 17일